

# 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7월 21일(월)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6월 중 경기선행지수, 5개월 연속 상승
- 2) 7월 중 소비자신뢰지수, 예상하회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중국 IPO 시장 현황, 상장 직후 최대 44% 급등 기록
- 2) 유럽 자동차 시장, 수요감소와 마진을 악화에 이증고
- 3) IMF 총재, 브릭스와 적극 협력 방안 모색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말레이항공, '민영화' 가능성 증가
- 2) 포브스, 홍콩 투자그룹에 매각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6월 중 경기선행지수, 5개월 연속 상승

- 지난 18일 컨퍼런스보드는 6월 중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비 0.3% 상승했다고 발표
  - 이는 시장 전망치인 0.5% 상승을 하회하는 결과이지만,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미국 경제가 하반기엔 회복이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
- 5월 중 경기선행지수는 0.5% 상승에서 0.7% 상승으로 상향 조정
-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고용 호조에 힘입어 소비자 수요가 증가해 미국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분석

### 2) 7월 중 소비자신뢰지수, 예상하회

- 지난 18일 톰슨-로이터/미시간대는 7월 중 소비자신뢰지수 예비치가 81.3을 기록했다고 발표
  - 이는 6월 중 확정치 기록인 82.5는 물론, 시장 전망치인 83.2를 하회하는 결과
-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6월 중 96.6에서 7월 중 97.1로 증가한 바 있음
-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6월 중 73.5에서 7월 중 71.1로 하락한 바 있음
- 한편, 1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.3%로 전월의 3.1%를 초과, 5~10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.6%를 기록해 지난달의 2.9%를 하회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중국 IPO 시장 현황, 상장 직후 최대 44% 급등 기록

- 지난 20일 WSJ는 금년 중국 상하이·선전 증시에 상장된 58개 기업들 모두가 데뷔 첫날 일일 상한선인 44% 급등을 기록했다고 발표
  - 중국 당국이 14개월 만에 IPO 승인을 재개하면서 IPO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짐
- 전문가들은 중국 IPO시장의 인기 요인으로 그간 억눌려있던 IPO 수요와 증권당국이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
  - 중국 증감위는 12개 기업에 대해 추가로 IPO를 승인할 것이며, 초과공급을 막기 위해 올 6월부터 연말까지 IPO 승인 건수를 100건으로 제한한다는 방침
- 한편, 중국에 IPO를 신청,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637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

### 2) 유럽 자동차 시장, 수요감소와 마진을 악화에 이종고

- 지난 20일 FT는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, 쉬는 공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
  - 유럽자동차공업협회가 사흘 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EU내 지난달 월간 신규 등록 승용차는 약 118만대로, 전월비 4.5% 증가, 10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
-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는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사실상 제자리에 불과함
  - 유럽 자동차시장 판매량 75%를 차지하는 5개 국가 가운데 2007년과 비교해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국가는 영국(0.7%)과 독일(0.4%) 2개국임

- 프랑스의 판매량은 당시보다 11%,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47%씩 감소를 기록함
- o 전문가들은 부진의 원인으로 유럽 내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률,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긴축정책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

### 3) IMF 총재, 브릭스와 적극 협력 방안 모색

- o 지난 17일 국제통화기금(IMF)의 라가르드 총재는 브릭스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표
  - 이는 브릭스 회원국들이 IMF의 역할에 대해 비판, 브릭스 은행인 ‘신개발은행’ 설립과 ‘위기대응기금’ 설치를 밝힌 가운데 언급한 발언
- o 그는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“신개발은행 설립을 축하하며 IMF가 브릭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관계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”이라고 전달한 바 있음
- o 한편, 브릭스는 지난 15일 제6차 정상회의에서 신개발은행 설립과 함께 1천억 달러 규모의 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말레이항공, ‘민영화’ 가능성 증가

- o 지난 20일 WSJ은 말레이시아 국부펀드로 말레이시아항공 지분 69%를 보유한 카자나 (Khazanah Nasional)가 문제의 항공사를 민영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
  - 카자나는 이번 여객기 피격사건이 있기 전부터 말레이시아항공의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민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

- 또한, 말레이시아항공은 이번 여객기 피격사건은 물론 3월 중 발생한 여객기 실종사건 이전부터 경영난으로 고전해온 것으로 알려짐
  - 지난 3년간 쌓인 적자만 42억링깃(약 1조3590억원) 규모로, 회사 주가는 여객기 피격 소식에 18% 폭락하는 등 지난 주말까지 35%하락 한 바 있음
- 한편,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항공을 사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비용절감을 비롯한 다른 구조조정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

## 2) 포브스, 홍콩 투자그룹에 매각

- 지난 18일 포브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브스 미디어 지분의 과반을 아시아계 투자자에게 팔기로 합의했다고 밝힘
  - 포브스는 독자와 광고매출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려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짐
- 포브스 미디어의 지분을 인수한 곳은 홍콩계 투자회사 IWM으로, 구체적인 매각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포브스의 회사 가치는 4억7,500만 달러로 평가됨
  - 관계자는 스티브 포브스가 계속 회장겸 편집장을 맡을 것이며, CEO 등 주요 임원진 변동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힘
- 한편, 포브스 일가의 지분은 약 20%로 매각 이후에도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